

# 『여자 없는 남자들(女のいない男たち)』 론

-남자, 여자, 그리고 ‘없음’ 것의 의미를 중심으로-

李 憲 仁\*

尹 惠 暎\*\*

(e-mail : xelfinx@hanmail.net · yun1971@cnu.ac.kr)

##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없음’ 것을 인식한 남자들 |
| 2. 문제를 회피하는 ‘남자’    | 5. 나가며             |
| 3. 남자를 자각하게 하는 ‘여자’ |                    |

키워드 : 女のいない男たち(Men without Women), 男(Man), 女(Woman), いない(absence), 回避(Evasion), 自覚(Self-awareness), 自己省察(Self-reflection)

## 1. 들어가며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1949~, 이하 ‘하루키’라 함)의 단편집 『여자 없는 남자들(女のいない男たち)』(『문예춘추(文芸春秋)』2014.4.18)은 “‘남자와 여자의 드라마’를 순수한 형태로 그려내고 있”<sup>1)</sup>다는 지적처럼 누구나 경험했을 만한 남녀의 이별을 다루고 있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sup>2)</sup> 그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1) 北村隆志(2014) 「村上春樹『女のいない男たち』と夏目漱石」 『民主文学』(589), 日本民主主義文学会, p.122.

2) 본 단편집은 여섯 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베테랑 배우인 가후쿠(家福)가 죽은 아내의 외도사실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운전사인 와타리 미사키(渡利みさき)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드라이브·마이·카(ドライブ・マイ・カー)」(『文芸春秋』2013.12), 오사카 사투리를 사용하는 도쿄출신 기타루(木樽)가 여자 친구인 에리카(えりか)의 외도를 안 이후 종적을 감춰버리고 마는 「에스터데이(イエスタデイ)」(『文芸春秋』2014.1), 싱글남인 도카이(渡会)의사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여자를

래서인지 기존 논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분석을 시도한 것이 많다. 대표적으로 여자가 저지른 배신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남자의 사랑을 이해하면서도 여자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다’는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여 ‘병과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한 것<sup>3)</sup>이나, 여자로 인해 상처를 받은 남자가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는 것에 주목하여 “이야기에 의한 인간성 회복”<sup>4)</sup>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등이 있다.

남자와 여자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제목을 시야에 넣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위치한 ‘없는’ 것의 의미규명은 작품의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자의 부재를 불러일으킨 남자에게 ‘없는’ 것의 의미를 고찰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특히 여자와 남자는 단순한 ‘性’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와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 「드라이브·마이·카(ドライブ・マイ・カー)」, 「기노(木野)」, 「독립기관(独立器官)」<sup>5)</sup>이며, 이 세 작품에 등장하는 남자들은 여자를 상실한 이후 ‘나’라는 존재를 인식해가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

않은 뒤 거식증으로 죽는 「독립기관(独立器官)」(『文芸春秋』2014.3)이다. 그리고 하우스에 갇혀 지내는 하바라(羽原)와 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세에라자드(シェラザード)」(『MONKEY』2014.2), 아내의 외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곽의 한적한 바(Bar)에서 일하는 기노(木野)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기노(木野)」(『文芸春秋』2014.2)가 있으며 2014년 4월 과거에 만났던 ‘엠(M)’이라는 여자가 자살했다는 전화를 받고 여자를 잃은 남자들에 대해 생각하는 ‘나’가 등장하는 「여자 없는 남자들(女のいない男たち)」이 추가되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 3) 都甲幸治(2014) 「妻の裏切り」(特集村上春樹が描く女と男 : 『女のいない男たち』を読む) 『文学界』68(6), 文芸春秋, pp.239-242.
- 4) 北村隆志(2014) 「村上春樹 『女のいない男たち』と夏目漱石」 『民主文学』(589), 日本民主主義文学会, pp.122-125. 岩宮恵子(2014) 「十四歳という人生の独立器官」(特集村上春樹が描く女と男 : 『女のいない男たち』を読む) 『文学界』68(6), 文芸春秋, pp.243-247 등.
- 5) 세 단편에는 같은 장소가 등장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먼저 「드라이브·마이·카」에서 가후쿠와 다카쓰키가 만나는 곳은 아오야마(青山)에 위치한 작은 바(Bar)로, 이곳은 “네즈(根津)미술관 뒤편의 골목 안쪽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가게”라고 묘사되며, “40대 전후의 과묵한 남자가 바텐더로 일하고 구석의 장식용 선반 위에는 회색의 마른 고양이 몸통을 둥글게 말고 잠들어 있다”고 묘사된다. 이는 「기노」에서 기노가 아오야마에 살고 있는 자신의 이모가 운영하던 카페를 물려받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가게의 묘사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노」에서는 이 가게에 대한 묘사가 “작은 정원이 있고, 멋있는 버들나무가 녹색 잎을 풍성하게 드리우고 있다”이며, “네즈 미술관 뒤편 골목 구석에 위치하고” 있다고 묘사된다. 또한 「독립기관」에서는 도카이 의사가 죽은 이후 ‘나’가 그의 비서인 고토(後藤)를 만나는 장소가 “아오야마 거리의 조금 뒤편에 위치한 카페테리아”라고 언급되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기노의 이모가 운영하던 카페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 작품에 동일한 장소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 작품은 서로 유기적 관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세 작품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없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 2. 문제를 회피하는 ‘남자’

「드라이브·마이·카」, 「기노」, 「독립기관」에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남자들이 등장한다.

먼저 사회적인 측면을 보면, 「드라이브·마이·카」에는 “특유의 개성을 지닌 연기파로 세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배우인 가후쿠(家福)가 등장한다. 그리고 「독립기관」에는 의사인 아버지로부터 병원을 물려받는 등 “좋은 환경에서 자라 높은 전문교육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금전적 문제를 겪은 적이 없”는 도카이(渡会)가 등장한다. 그는 현재 성형외과를 경영하는 52세의 싱글남으로 수려한 외모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이다. 또한 「기노」에는 런닝화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17년간 근무하는 기노(木野)가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재미와 보람을 느끼며 일종의 책임감과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자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생활 또한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가후쿠의 경우 같은 영화에 출연하던 미모가 출중한 여배우를 아내로 맞이하여 2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가후쿠는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 “충만하면서 파란 하나 없”으며 “친밀한 부부인 동시에 신뢰하고 있는 친구이고 서로 무엇이든 솔직히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후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사이가 좋은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노 역시 자신들의 “부부 사이에는 이렇다만 할 문제점이 전혀 없었으며 아내의 행동에 의심할만한 낚새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한다. 도카이의 경우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원했던 “매력적인 여성들과의 친밀하면서도 지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았던 남자이다.

이와 같이 남자들의 삶은 안정적이고 완벽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여자의 배

신으로 인해 그 삶이 붕괴되고 마는데 이와 비슷한 설정은 본 단편집 바로 이전에 발표된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色彩を持たない多崎つくると、彼の巡礼の年)』(『文芸春秋』 2013.4.12, 이하 ‘『색채』’라 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인 다자키 쓰쿠루(多崎つくる)는 고등학교 시절 네 명의 친구들과 유토피아와도 같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시라네 유즈키(白根柚木)의 거짓말로 인해 그 공동체로부터 배제된다. 쓰쿠루는 자신이 믿었던 완전한 세계의 붕괴로 인한 박탈감으로 반년 간 죽음만을 생각하며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그동안 쓰쿠루는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한 이유에 대해 추궁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러한 모습은 가후쿠, 도카이, 기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또한 적극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가후쿠의 경우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며 속으로는 “피를 흘릴” 정도로 상처를 받지만 아내를 추궁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좋은 남편의 모습을 ‘연기’한다.

(2a)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아차리지 않도록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것이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며 속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면서도 얼굴에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것.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고 침대에서 아내를 품에 안는 것. 아마도 보통의 살아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가후쿠는 프로 배우였다. 다른 사람이 되어 연기를 하는 것이 그의 생업(生業)이다. 그리고 그는 열성을 다해 연기를 했다. 관객 하나 없는 연기를<sup>6)</sup>.

(「드라이브·마이·카」 p.32.)

가후쿠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아내의 외도가 현실화되었을 때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연기’라는 미명 하에 그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기노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예정보다 하루 빨리 출장에서 돌아온 기노는 가장 친한 회사 동료와 아내의 외도

6) 본문인용은 村上春樹(2014)『女のいない男たち』, 文芸春秋에 의한다. 번역은 논자가 하였고 인용문 뒤에 제목과 인용페이지를 기입하였다.

장면을 목격한다. 하지만 기노는 “고개를 숙이고 침실 문을 닫고 일주일 분의 세탁물이 가득 들어 있는 여행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그대로 집을 나와”버릴 뿐이다. 게다가 자신이 “예정보다 하루 빨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b) 헤어진 부인이나 그녀와 잠을 잤던 옛 동료에 대한 분노나 원망의 마음이 어째서인지 생기지 않았다. 물론 처음에는 강한 충격을 받았었고, 제대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며칠간 지속되었지만, 이윽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그런 일을 당할 만 했던 것이다. 본래부터 아무런 달성감도 없고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인생이다.

(「기노」 p.221.)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노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원망의 마음조차 가지지 않고 오히려 “결국에는 그런 일을 당할 만 했던 것”이라 말하며 스스로를 자책한다. 문제발생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미의 자책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본래 자신의 인생을 타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노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상처받아야 할 때 충분히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발생”<sup>7)</sup>시켰다는 지적도 있듯이, 기노는 ‘자책’을 하면서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기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이름을 딴 바(Bar)를 차리는데, 그 가게는 기노에게 “기묘하게도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었다. 기노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서 회피할 수 있는, 즉 상처받은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는 다음 묘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c) 고통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실망이나 체념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각도 지금은 하나도 명료하게 느낄 수 없다. 겨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와 같이 깊이와 무게를 상실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론가 비틀비틀 흘러가지 않도록 단

7) 小林由紀(2015) 「『女のいない男たち』における『木野』の「両義」性:物語構造連鎖から読み解く」 『比較文化研究』(119), 日本比較文化学会, p.56.

단히 붙들어 매어 둘 장소를 마련해 둘 뿐이었다. (「기노」 p.221)

‘기노’라는 가게는 기노에게 자신의 상처를 잊을 수 있는 일종의 회피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아내가 기노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 “조용하고 청결하며 안정된 분위기가 있는 실로 당신다운 가게”라고 언급한 것은 그 가게가 외부의 문제로부터 등을 돌린 채 안정감만을 추구하는, 이른바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것이 없”는 기노라는 남자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노가 회피의 공간을 원했다는 것은 여행을 떠났을 때에도 드러난다. 그는 단골손님이자 이모의 친구였던 가미다(神田)의 권유로 구마모토(熊本)에 가는데, 좁은 비즈니스호텔에서 “갑갑함을 느끼지도 않고 방 안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다. 지금의 자신에게는 그곳이 “딱 맞는 거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만의 폐쇄적인 공간에 갇혀 있을 때 안정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다.

도카이 또한 기노와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이별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는 남자이다. 그는 유부녀나 애인이 있는 여자들만 만나는데 여자들은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자신의 남편에게 돌아가거나 결혼을 하면서 그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스스로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부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도카이는 이를 원망하지 않고 그녀의 선택을 “신성한 행위이자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결혼선물을 하기도 한다.

(2d) 도카이는 그러한 통보를 늘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리고 적절한 정도의 슬픔을 띤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독립기관」 p.125.)

도카이는 “그녀들의 인생의 귀중한 일부를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해야만 한다. 자신이 그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며 반복되는 이별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한다. 자신은 그녀들에게 “넘버 2 애인”이며 편리한 “우천용 보이프렌드”이자 “적당한 바람 상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신은 누군가의 대응으로서의 적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불가하다는 생각이 도카이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다. 이러한 도카이의 말

은 자기합리화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누군가와 진정한 교류를 맺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연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자들은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고 완벽하다고 믿어왔다. “적어도 가후쿠의 관점으로 본다면”이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남자들만의 착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붕괴를 가져온 여자의 배신은 남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트러블”이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남자들은 자신들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추궁하지 않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피하며 자신들의 상처를 묵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남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미 무너져버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삶의 안정과 완벽을 유지하길 바라는 나머지 스스로에게 닥친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엿볼 수 있다.

### 3. 남자를 자각하게 하는 ‘여자’

세 단편에는 남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두 부류의 여성이 등장한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마치 한눈을 팔 듯 남자를 바꾸고, 배신당한 남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에 상처를 남기”<sup>8)</sup>는 “현대판 미네코(美禰子)”<sup>9)</sup>와도 같다는 말처럼 남자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는 가후쿠와 기노의 아내, 그리고 도카이가 만났던 다수의 여자들이다. 이들은 남자와 여자사이에 형성된 ‘우리’라는 세계를 붕괴시킨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남자들에게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없는’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후자에 속하는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드라이브·마이·카」에 등장하는 가후쿠의 운전수인 와타리 미사키(渡利みさき)라는 여성이 이에 속한다. 그녀는 “똥똥하지는 않지만 어깨가 넓고 다부진 체격”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건장한 체격을 가진 미

8) 앞의 논 1), 北村隆志(2015) p.123.

9) 앞의 논 1), 北村隆志(2015) p.123. 기타무라 류지(北村隆志)는 하루키의 작품과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의 작품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그들 작품에서 그려지는 남녀의 삼각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여자 없는 남자들』에 나오는 여성의 이미지가 『산시로(三四郎)』 「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08에 등장하는 산시로(三四郎)와 노노미야(野々宮)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제3의 남성과 결혼한 미네코(美禰子)를 연상하게 한다고 보았다.

사키에 대해 도이 유타카(土居豊)는 “『색채』에 등장하는 구로노 에리(黒埜恵理)를 방불케 한다”<sup>10)</sup>고 언급하고 있다. 이어 그는 하루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건강해 보이는’ 여성들이 대개 주인공의 내면에 돌을 집어던지는 역할을 한다”<sup>11)</sup>고 했는데, 그의 지적처럼 미사키 또한 가후쿠가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것은 미사키의 이력서를 본 가후쿠가 “24살이라고 하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후쿠는 생후 사흘 만에 죽은 자신의 아이가 잘 성장하였다면 현재의 미사키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곧 자신과 부인의 행복한 삶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 가후쿠는 아이가 죽은 이후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3a) 아이를 그런 식으로 갑자기 잃은 두 사람은 물론 깊은 상처를 받았다. 거기서 발생한 공백은 무겁고도 어두웠다. 감정을 추스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두 사람은 집 안에 틀어박혀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보냈다. 말을 꺼내면 무언가 쓸모없는 말을 내뱉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주 와인을 마시게 되었다. 그는 한동안 이상하다고 여길 정도로 열심히 서예에 빠져있었다. (「드라이브·마이·카」 p.34.)

위의 묘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후쿠와 그의 아내는 “이전보다 더 깊이 각자의 일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의 캐릭터 연구에 탐욕스러울 만큼 빠져들” 정도로 무언가에 몰두한다. 그리고 가후쿠는 자주 부인과 이즈(伊豆)나 하코네(箱根)와 같은 곳을 드라이브했었지만 결국에는 아내가 죽기 전 “10년 가까이는 항상 혼자서 탔”다고 말한다. 두 사람의 모습에는 거리가 느껴지고 아픔을 공유하거나 위로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가후쿠는 당시 이러한 아내와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된 그녀의 외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외도상대에게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그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한다.

10) 土居豊(2014) 『いま、村上春樹を読むこと』 関西学院大学出版会, p.118.

11) 위의 책 10), 土居豊(2014) p.118.



그러던 어느 날 미사키는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를 그에게 들려주는데 이것은 그녀가 가후쿠와의 반복되는 만남을 통해 그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미사키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그 이유가 하나뿐인 딸이 “태어날 때부터 못생겼기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남편과의 문제를 미사키의 탓으로 돌렸다고 한다.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미사키의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는 기술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것은 즉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외부에 있다고 믿어버리며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어머니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술을 마시며 미사키를 학대하던 그녀의 어머니는 결국 알코올중독자가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였다. 미사키는 그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인생에는 “자신을 떠나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결여된, 즉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병과 같은 것”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가후쿠와 그의 아내 역시 미사키의 어머니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가후쿠의 아내는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를 타인의 품안에서 찾고자 했다. 그리고 가후쿠 역시 아내와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만을 하며 회피할 뿐이었다. 결국 가후쿠는 미사키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어머니와 같은 ‘병’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기노」의 경우 기노가 운영하는 바를 찾아온 30대 전후의 단골 여자 손님이 그를 자각시키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 여성은 기노가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성적 관계를 맺은 여성이기도 하다. 처음 가게에서 이 여성을 보았을 때 기노는 그 여성에게서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의 본능이 “무언가 작은 목소리”로 그녀와 “깊이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호소하고 있는 것을 감지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여성이 “‘상실·죽음’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노가 무의식중에 느끼고 있었다”<sup>12)</sup>고 보며 그녀의 존재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노가 방어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노가 그 여자와 깊이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던 것은 어쩌면 여자의 존재가 자신이 회피하고 싶던 무언가를 일깨울지도 모른다는 것을 무

12) 大本達也(2015) 「『女のいない男たち』 「木野」を読む:村上春樹・小説論ノート (1)」 『日本語・日本文化研究』 (21), 京都外国語大学留学生別科, p.8.

의식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방어기제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는 어느 늦은 밤 여자는 기노의 가게에 홀로 찾아온다. 그녀는 갑자기 기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기노는 그것이 무엇 이든지간에 보고 싶지 않았고, 또한 “봐서는 안 되는 것”임을 느꼈다. 그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옷 안에 감추어져 있던 암갈색의 학대의 흔적이었다. 기노의 바를 자주 찾아왔던 그녀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노가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젊은 여성으로서 는 드러내기 힘든 감추고 있던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것은 기노에게 주는 일종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기노는 여자의 몸을 보고 놀라면서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하나하나 만지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주목되는 장면이다. 기노는 그 화상 자국이 “번호를 따라 연필로 선을 그으며 도형을 그려내듯이” 무언가의 형태를 이루어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 행위는 축적된 작은 상처들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녀와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된 기노는 그 여자의 눈빛에서 “당신은 그것을 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인식하게 된다. 즉 기노는 이 여성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함구하고 회피해왔던 상처를 외면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노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역시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혼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아내와 만난 날 기노는 아내를 모습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3b) 그러나 그 지퍼를 내렸을 때 또는 단추를 풀었을 때 거기에 무엇이 보일 지는 기노는 예상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상상을 할 뿐이었다. 눈을 감으니 무수한 암갈색의 화상 자국이 그녀의 매끄러운 하얀 등에 살아있는 벌레처럼 스멀스멀 꿈틀거리며 제각각의 방향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 불길한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몇 번이나 작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기노」 p.241)

자신과 관계를 가진 여성의 몸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상처처럼 기노는 아내에게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이 보지 못했던 상처가 그 속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도카이에게 결여되어 있던 것을 자각하게 한 것은 그가 유일하게 사랑에 빠졌던 여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외모나 직업, 경제적인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갖추고 있던 그는 52세가 될 때까지 결혼한 여자나 애인이 있는 여자만을 만나며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이러한 삶을 가장 이상적인 만족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결혼생활과는 맞지 않는다는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서로 간에 책임을 구하는 남녀관계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던 그가 열여섯 살 연하인 여자에게서 의도치 않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당혹해한다. 도카이가 사랑에 빠진 여자는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추구해왔던 완벽에 가까운 삶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다.

#### 4. ‘없는’ 것을 인식한 남자들

이처럼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기 전까지 남자들은 스스로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만 찾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찾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만다.

먼저 가후쿠는 아내가 생전에 네 명의 남자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내가 죽은 뒤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진 남편의 모습을 연기하며 아내의 마지막 외도 상대였던 다카쓰키(高槻)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실제 만나 본 그는 “이류 배우로 사십대 초반의 그다지 연기도 잘할 거 같지 않으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부분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 수 없었던 가후쿠는 더욱 혼란해할 뿐이었다.

또한 이혼 소송 준비로 오랜만에 아내를 만난 기노는 그녀가 “이전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건강해 보였으며 목덜미와 팔에 붙어있던 군살도 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며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인식하게 된다. 서류 정리가 끝나자 아내는 기노에게 자신들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와도 같았다”고 말하지만 기노는 지금까지 자신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믿어

왔기 때문에 아내의 그러한 언급이 진심으로 와 닿지 않는다. 기노는 아내의 변화가 단지 새로운 사람과 “새롭고 보다 충실한 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아내가 언급한 자신과의 결혼 생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는 간과해버린다.

그리고 도카이 역시 자신이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가 남편도 자신도 아닌 “그다지 좋은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제3의 상대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이 의도한 지금까지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여자가 자신보다 못한 상대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늘 완벽을 추구해왔던 도카이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자들은 여자의 부재의 이유를 ‘타인’ 즉 외부적인 요소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남자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가후쿠는 스스로를 속이는 ‘연기’를 그만두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가후쿠는 미사키에게 ‘연기’를 하는 것이 곧 본연의 자신을 감추고 “별개의 인격이 되는 것”이자 그것이 끝나면 “아무리 싫어도 다시 본래의 인격으로 되돌아 와야 하는 것”이 ‘룰’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연기를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이전과는 조금은 서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며 “완전하게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가후쿠의 언급처럼 ‘연기’만을 지속하다 보면 서는 위치가 점차 달라지면서 본래의 자신과는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를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가후쿠의 경우 아내의 외도를 모른 채하고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해 주는 좋은 남편의 모습만을 줄곧 ‘연기’하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직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내를 잃은 후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의 정부에게 위로받길 바라는 가여운 남편의 모습만을 줄곧 ‘연기’할 뿐이었다. 만들어낸 역할에 몰입한 나머지 가후쿠는 그것이 “정신적으로 힘들다 해도, 그 연기의 의미가 마땅한 형태를 이루기 전에는 흐름을 멈출 수가 없”는 것처럼 연기를 “그만둘 계기”를 찾지 못했다. 즉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춘 채 별개의 인격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가후쿠는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올 계기를 점차 상실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을 외부나 타인에게서만 찾았던 가후쿠는 친구인 척 연기를 하며 다카쓰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떤 면이 아내를 매료시켰는

지 알아내기 위해 일부러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자책하며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맹점”과도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자 다카쓰키는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타인을 알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깊고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가후쿠는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답답한 감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후 다카쓰키라는 타인을 향했던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가후쿠는 친구라는 ‘연기’를 그만두게 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자신 안에는 “분노가 아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잠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왜 자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남아있었다.

미사키는 그런 가후쿠에게 “아내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은 “병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 역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들은 모두 연기를 한다”는 말처럼 가후쿠가 자신을 감추며 좋은 남편의 역할을 ‘연기’했던 것과 같이 아내 역시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한 ‘연기’를 했던 것이다. 즉 두 사람 모두 “자신을 떠나서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결여된, 즉 자신 안에 ‘없는’ 것의 의미를 타인이나 외부에서 찾았던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이었던 ‘자신’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연기’에 몰입한 나머지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을 상실했던 가후쿠가 미사키를 만난 이후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의 묘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4a) 그는 조수석에 몸을 기대어 지나쳐가는 거리의 풍경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나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고 있던 그에게, 그러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리의 풍경은 신선하게 느껴졌다. (「드라이브·마이·카」 pp.23-24.)

항상 운전석에서 운전만 하느라 자신의 주변 풍경을 바라보지 못했던 가후쿠는 운전석으로 대변되는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서야 비로소 주변의 풍경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을 회피하던 ‘연기’에서 벗어나야지만 ‘본래의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노의 경우 여행을 떠나면서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골손님 가미다는 기노에게 이 가게가 더 이상 안정된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며 잠시 동안 가게를 닫고 여행을 떠날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기노는 그에게서 엽서를 쓰되 어디에도 이름이나 메시지를 기재하면 안 된다는 의미 불명의 말을 듣게 된다. 그의 말에 어떠한 불만도 품지 않고 여행을 떠난 기노는 그의 말대로 이름도 주소도 적지 않은 엽서를 이모에게 보내곤 하였다. 그러던 중 구마모토에 머물던 기노는 약속한 날이 되어 이모에게 엽서를 보내고자 했다. 그러나 엽서에 그려진 구마모토 성을 바라보던 기노는 문득 자신이 어디에도 접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어딘가 현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상실해 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어디에도 없는 남자가 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결국 그는 가미다가 말한 금기를 깨고 이모에게 보내는 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 여기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이름’을 적었다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망각해 왔던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자각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노는 자신을 찾아온 의문의 노크소리를 듣게 된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지만 곧 “그것이 긴 시간 동안 잊고 지내왔었던, 꽤나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자신이 찾아온 것임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4b) 나는 상처받아야 할 때에 충분히 상처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진정한 아픔을 느껴야만 할 때, 나는 가장 중요한 감각을 말살시켜버리고 말았다. 뼈에 사무칠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그 결과 이렇게 알맹이가 없는 텅 빈 마음만을 품게 되었다.

(「기노」 pp.256-257.)

일전에 가미다가 말했듯이, 기노가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 상처받은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자성(自省)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노의 마음이 품고 있는 최대

의 문제는 타자에 대한 무관심”<sup>13)</sup>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기노)에게 부인이 없어진 일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혼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마주했을 때의 ‘고독감’”<sup>14)</sup>이라는 작가의 언급처럼 정작 기노에게 부재해 있었던 것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가미다가 말했던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기노의 문제는 “기묘할 정도로 안정감을 주는” ‘기노’라는 공간 안에 갇혀 문제를 방치한 스스로에 대한 무관심인 것이다.

도카이 또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모두 빼앗기고 육체만 남게 된 의사의 이야기를 읽은 후 “장소와 시간만 다르다면 그 남자의 인생이 곧 자신의 인생”이라 생각하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이는 자신이 유대인 의사와 같이 “지금의 생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끌어내려져 모든 특권을 박탈”당한 “아무 것도 아닌 일개의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마저도 여자가 사랑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카이는 여자의 배경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여자’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의사라는 직업과 부유한 환경을 가진 ‘자신’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도카이가 가진 재력을 철저하게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전말은 도카이가 죽은 뒤 그의 비서를 통해 기술되고 있다. 즉 그녀에게 도카이는 상황에 맞게 이용할 “편리하면서도 디딤돌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도카이는 제 3의 남성의 출현으로 인해 “보기 좋게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끼며 충격에 빠지게 된다. 즉 도카이가 음식을 거부하며 홀로 고독하게 죽기를 결심한 것은 ‘음식물’로 표상되는 외부적 요소를 배제한 뒤에 남겨진 “아무런 특기도 재능도 없는 52세의 남성”이라는 완전한 본연의 ‘자신’의 모습으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아무 것도 아닌 일개의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가길 원했던 것이다. 도카이는 외부적 요소에 둘러싸여 그동안 간과해왔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죽음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후쿠가 친구인 척 가장했던 연기를 그만두고, 기노가 노크소리의 주인이 자신인 것을 깨닫고, 도카이가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며 “자신의 육체가

13) 앞의 논 12), 大本達也(2015) p.11.

14) (<http://mainichi.jp/shimen/news/20141104dde018040018000c.html>)「interview:村上春樹 僕の小説は「ロールゲーム」「孤独」の時代に／上」, 毎日新聞 (검색일 : 2015. 11. 5).

제로에 근접해 가는 것”을 염원했듯이 남자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제기와 인식을 통해 지금까지 타인이나 외부적 요소에서 찾고자 했던 ‘없는’ 것이 ‘자기 성찰’의 부채임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 5. 나가며

이상으로 「드라이브·마이·카」, 「기노」, 「독립기관」에 등장하는 ‘남자’의 양상과 ‘여자’의 역할을 통해 ‘없는’ 것의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가후쿠, 기노, 도카이는 자신의 삶이 흔들리거나 붕괴되는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일종의 회피를 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간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 나타나 그 행동이나 의식의 문제를 인식시켜 준 것은 가후쿠의 운전수였던 미사키, 바를 찾아온 의문의 여성, 도카이가 사랑한 여자였다. 남자들은 이 여자들을 통해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 자신들의 모습 또는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린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했던 것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남자들은 자신의 존재의미에 대해 생각하면서 ‘없는’ 것이 즉 ‘자기 성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자의 부채를 통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남자의 모습에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인에게 “자신들 안에 왜곡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허용하고 묵인해 온 우리 자신을 질타해야 하”<sup>15)</sup>며 새로운 윤리와 규범을 위해 “우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sup>16)</sup>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하루키의 고민이 투영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인간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이별이라는 공감하기 쉬운 테마를 통해 문제회피의 위험성과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15) (<http://mainichi.jp/enta/art/news/20110611k0000m040019000c.html>) 「カタルーニャ國際賞スピーチ「非現実的な夢想家として」」 「毎日新聞」(검색일 : 2015. 1. 7).

16) 위의 사이트 15), 「カタルーニャ國際賞スピーチ「非現実的な夢想家として」」(검색일 : 2015.1. 7).



## 【참고문헌】

- 岩宮恵子(2014) 「十四歳という人生の独立器官(特集村上春樹が描く女と男: 『女のいない男たち』を読む)」 『文学界』 68(6), 文芸春秋, pp.243-247.
- 大本達也(2015) 「『女のいない男たち』 「木野」を読む:村上春樹・小説論ノート(1)」 『日本語・日本文化研究』 (21), 京都外国語大学留学生別科, p.8., p.11.
- 北村隆志(2014) 「村上春樹 『女のいない男たち』と夏目漱石」 『民主文学』 (589), 日本民主主義文学会, pp.122-123.
- 小林由紀(2015) 「『女のいない男たち』における『木野』の「両義」性:物語構造連鎖から読み解く」 『比較文化研究』 (119), 日本比較文化学会, p.56.
- 都甲幸治(2014) 「妻の裏切り(特集村上春樹が描く女と男: 『女のいない男たち』を読む)」 『文学界』 68(6), 文芸春秋, pp.239-242.
- 土居豊(2014) 『いま、村上春樹を読むこと』 関西学院大学出版会, p.118.
- 村上春樹(2014) 『女のいない男たち』 文芸春秋, pp.23-24, p.32, p.34, p.125, p.221, p.241, pp.256-257.
- (<http://mainichi.jp/enta/art/news/20110611k0000m040019000c.html>) 「カタルーニャ国際賞スピーチ 「非現実的な夢想家として」 「毎日新聞」 (검색일 : 2015. 1. 7).
- (<http://mainichi.jp/shimen/news/20141104dde018040018000c.html>) 「interview:村上春樹 僕の小説は「ロールゲーム」「孤独」の時代に／上」 「毎日新聞」 (검색일 : 2015. 11. 5).

논문 투고 일자 : 2016.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16. 07. 25.
게재 확정 일자 : 2016. 07. 27.

---

 < 要旨 >
 

---

 『女のいない男たち』論  
 -男、女、そして「いない」の意味を中心に-

李惠仁・尹惠暎

本稿は「ドライブ・マイカー」、「木野」、「独立器官」に登場する男の様相と女の役割を通じて「いない」ということの意味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家福、木野、渡会は自分たちの生活の基盤が崩れる事件を経験するが、それを積極的に解決しようとせず、回避しながら生きていく。そのような彼らの行動と意識の問題を認識させるのが家福の運転手であるみさき、バーに訪れた疑問の女性、そして渡会が愛した女である。男たちは女を通じて回避的な態度をとっていた自分達の姿、あるいは自分に欠けていたものを他人から探そうとした事を認識する。そして男たちは自分達の存在の意味について深く悩み抜きながら「いない」ものがつまり「自己省察」であることを悟る。このように女の不在と自覚を通じて「私はいったいなにもなのだろう」という疑問を抱く男たちの姿は2011年東日本大震災で大きな被害を受けた日本人に「そのような歪んだ構造の存在をこれまで許してきた、あるいは黙認してきた我々自身をも、糾弾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言いながら「我々が共有できる物語」を作るべきだと断言した作家村上春樹の悩みが描かれ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すなわち男と女は人間の全体像を示しており、男女の別れという共感しやすいテーマを通じて問題回避の危険性と自己省察の重要性を強く訴え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

 The study of 『Men without Women』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men, women, and 'absence'-

Lee, Hye-In-Yun, Hye-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an absence through men's attitude and women's role who appear in the book 『Men without Women』. Although the men experience their lives being ruined, they try to evade rather than actively to solve the problem. However, making them recognize it in their lives is none other than the women such as Misaki who is a driver of Kafuku, an unknown woman who drops by a bar, and a woman Dokai loves. The men come to know, by the women, that they are evasive and lay the cause of their failure to other's charge. In addition, they come to realize that the 'absence' in them is 'self-reflection', deeply thinking over and over their own existences. With the absence of women and self-reflection, the image of the men, who agonize on 'who I am', suggests the portrait of Japanese men who suffered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Haruki's concern that "we should blame our own selves who accept and show toleration to our distorted mind-set" and create "a story we can share" to make to a new ethical standard might be projected in this novel. The men and the women in the work, in fact, indicate the entire human race. Accordingly, it is the importance of self-reflection and the danger of avoiding issues that the author wants to strongly express through an easy topic, so called parting between men and women.